

現代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類型과 美的 特性⁺

崔京姬

湖南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助教授

The Type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Sportism Expressed in Modern Fashion⁺

Choi, Kyung H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portism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Many factors attribute to the advent of sportism such as rapid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s toward sports, increase in leisure time, new fashion materials resulting from new technologies, youth culture and postmodernism. Designers gazing into the future are inspired by the details and functionality of clothing for snow boarding, skiing, rock-climbing and fitness. While the sportswear is the term which stemmed from the need for functionally in sports, the Sportism is the style inspired by the formative elements, that is, the details, the silhouette, and the colors of the sportswear. New technologies for sports, the powerful influence of youthful culture, and the celebritizations of the sports stars made the sports look more popular. It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aesthetic values, i.e., the functional sportism, the street sportism, and the futuristic sportism. The functional sportism is expressed with the details of function, simplicity, and no useless ornament, the street sportism with fun, androgynous and unisex mode and the image of hip-hop look and traditional look, the futuristic sportism with new high tech fabrics and cyber style. The characters of these are a sence of unisex, sensualness, ostentation, renovation.

Key words: Sportism(스포티즘), Functional Sportism(기능지향 스포티즘), Street Sportism(스트리트 스포티즘), Futuristic Sportism(미래지향 스포티즘)

I. 서론

20세기에는 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여가시간이 많아 지고, 스포츠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어 스포츠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포츠는 현대사회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이어주고 정치, 경제, 예술, 영화, TV, 광고, 디자인 등 문화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19세기 이래 지금까지 패션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¹⁾ 이제 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한 여가 활용의 수단이나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경향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며,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유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의 스포츠웨어는 스포츠 행위를 증진시켜 주

⁺ 본 연구는 2002년도 호남대학교 교내 논문장려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는 운동복의 역할을 뛰어넘어 일상복으로서 널리 착용되어져서, 이들은 복식 디자인에 영감을 주는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식 디자인의 한 분야에서 전반적인 유행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들 스포츠를 통해서 이루어진 현대 여성 복식의 캐주얼화는 페미니즘 운동과 맞물려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현대 기성복 산업의 마케팅적 요소를 충족시키면서 많은 변화를 해오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웨어는 단순히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성과 활동성 외에도 성적, 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패션성을 갖춘 새로운 패션으로서 발전하였고, 일시적인 유행현상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관과 미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복식 현상으로서 자리잡고 있어, 현대 패션에 있어서의 스포티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스포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스포츠웨어 디자인이나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 스포츠 발생과 변천에 대한 사적 연구, 그리고 국내·국외의 스포티비 패션이나 스포츠 룩에 대한 개념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현대 패션에 있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유행코드로서의 스포티즘 스타일이 패션성을 지니게 된 배경과 스포티즘 스타일의 세부적인 분석과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복식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티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 및 미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20세기 패션에서의 스포티즘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하였고, 둘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을 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복식 및 스포츠웨어 관련 문헌자료와 컬렉션에 발표된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사진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문헌적 연구와 내용 분석 방법을 병용하여 스포티즘이 추구하고자 하는 표현적 의미를 유추하고, 현대 패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새로운 미적 가치의 전환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이는 현대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며 패션을 통해 반영되는 스포티즘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 영감으로서의 중요한 요소인 스포티즘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포티즘의 개념

스포츠의 일반적 어원은 중세 이전의 라틴어인 'disports'²⁾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본전환'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여가와 경쟁이라는 추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 경기' 또는 '재미, 오락' 등으로 정의되어지고 있다. 복식에서는 형용사인 '스포츠(sports)'가 사용되며, '스포츠에 적합한' 또는 '평상복용의'라는 의미를 가진다.³⁾

스포츠웨어의 현대적 개념은 19세기말 미국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테니스, 골프, 자전거, 수영, 요트, 사냥,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가 유행하면서 입혀진 활동을 위한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1920년대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디자인되고 여가복 개념으로 발전한 "스펙테이터 스포츠웨어(spectator sportswear)"로 크게 구분된다.

원래 스포츠웨어(sportswear)는 운동경기, 개인적 운동과 취미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하는 피복류의 총칭이다. 스포츠웨어의 개념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의미가 광범위해져서 처음에는 테니스, 골프, 자전거, 수영, 스케이트, 요트 그리고 사냥 등 직접 스포츠를 하기 위해 착용되던 의복을 의미하다가 1920, 30년대에는 스웨터, 치마, 블라우스, 반바지 등의 운동경기를 관람할 때 입는 일상적인 의미가 더해졌다. 1960년대 후반에는 그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해 스포츠웨어에 한정된 옷이 아닌 캐주얼웨어, 레저웨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다.⁴⁾

스포츠즘(sportism)은 단순히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요소와 디자인 요소를 도입, 응용한 일시적인 경향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미의식을 기반으로 느낌과 정신으로써 스포츠를 수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⁵⁾ 즉 과거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스포츠 경기복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경향이 아니라 스포츠 감각을 받아들여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모든 스포츠의 요소를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기능성' 과 '실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스포티즘은 스포츠 룩에서 출발하였으나, 스포티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상복과 스포츠 웨어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신소재의 사용, 기능적인 디테일과 액세서리가 일상복에도 다양하게 차용되는 변화가 일어났다.⁶⁾

현대에 사용되고 있는 스포티즘과 관련된 패션용어는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 스포츠 룩(sports look), 액티브 스포츠 룩, 스포티 캐주얼 룩(sports casual look) 등으로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분이 명확치 않아 이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은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착용 목적에 따른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을 일상복에 응용한 것을 말한다. 1963년 가을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에서 방한복 스타일이 등장함으로써 사용된 용어로 셔츠 룩, 사파리 룩, 밀리터리 룩, 스모크 룩, 테니스 룩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1960년대 후반 이후 패션 트렌드의 커다란 흐름의 하나가 되었다.⁷⁾

또한 스포츠 룩(sports look)은 1970년대 중반 카스텔바작(Castelbajac)이 자신의 디자인 컨셉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그대로 타운웨어화한 형태이다.⁸⁾ 이는 스포티브 룩과 구별되고 스키웨어, 조깅슈트, 테니스웨어, 다운 베스트, 다운 재킷, 아노락(anorak) 등이 있다. 일상복의 디자인 요소를 액티브 스포츠웨어에 적용한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슬레틱 스포츠 룩(athletic sports look)이라고도 한다.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은 보통 운동복이라고 불리는 것의 총칭으로 특정 스포츠를 하기 위해 특정한 경기용 유니폼과 스포츠에 적응하는 기능을 가진 복장을 말한다. 수영복, 승마복, 테니스복, 스키복 등이 이에 속하며 운동의 동작에 적용시킨 형태, 구성, 착장 규정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스포츠 캐주얼 룩(sports casual look)은 캐주얼 웨어에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요소를 받아들

인 스포티브 룩의 일종이다.⁹⁾

2 스포티즘의 사회문화적 배경

1)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20세기 과학문명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는 유행을 선도하는 가장 두드러진 사회적 영향중의 하나로 등장했으며 패션과 문화의 영역에 큰 힘을 지니게 되었다.

데이비드 라이스만(David Reisman)을 비롯한 사회학자들이 '레저(leisure), 레크레이션(recreation), 관람문화(spectation)'를 세계 속의 미국의 주요 이미지로 지적하였듯이,¹⁰⁾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여가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고, 유급휴가제로 인해 대중들이 스포츠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스포츠웨어가 캐주얼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 이후 여성들은 스포츠와 레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스포츠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취미활동으로 조깅, 수영, 테니스 등의 스포츠가 성행하였고, 달리기 보급으로 조깅복이 패션의 요소로 등장하여 평상복으로도 착용되는 등 스포츠개념이 더욱 확장되었다.

특히 1990년 후반에 들어서부터 스포츠와 레저는 급속도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감성지향적 소비 문화와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의 음악, 패션, 영화, 운동 등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은 패션 전반에 스포티즘을 반영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 스포티즘은 가장 큰 패션 유행현상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그로 인한 각종 스포츠의 프로화와 빅 이벤트화는 스포츠 영웅을 제시하여 의복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¹¹⁾ 이는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2) 테크놀로지 발달과 기능성 추구

최첨단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역사적 전환으로 인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편리한 기능을 향유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섬유기술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개발 등을 바탕으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기능성 섬유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천연섬유이상의 흡수, 흡습성을 가지는 합성섬유가 등장하였으며, 역으로 합성섬유를 능가하는 고기능성 섬유가 계속 개발되었다. 한편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인간 중심적 사고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생활 속에 편안함, 쾌적함과 함께 기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개되어 왔다. 이는 패션에 있어서 형태나 소재에서 혁신을 일으켜 왔으며 특히 기능적인 스포츠의 요소를 표현하는 스포티즘 패션을 창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쳐왔다.

패션에서 최첨단으로 인식되는 혁신의 상당 부분은 직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수 신소재는 스포츠웨어 회사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1960년대 스키의 보급과 방수, 방풍 소재의 개발은 스키복의 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가벼운 방풍 나일론의 모자 달린 재킷은 가장 인기 있는 의복이 되었다.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사와 스판덱스의 개발은 몸에 밀착되어 몸매를 드러내는 대담한 수영복의 유행을 가져왔으며, 운동에 대한 열기와 함께 1970년 스판덱스 사이클 반바지와 러닝 슈즈가 인기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탐험가들이 처음으로 착용한 100% 폴리에스터 직물인 폴리스(fleece) 또한 대표적인 예다.

최근 일본 직물 제조사는 체온 변화에 따라 색이 변하거나 신체 활동에 따라 향기를 내는 섬유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신소재 개발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스포츠웨어 뿐만 아니라 스포츠 관련 기구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어져 미래지향적 스포츠 디자인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신분과 부의 과시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스포츠패션은 20세기 말 전자기술, 멀티미디어, 인터넷 등의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이버 컬처가 형성되고 사이버 스포츠 게임이나 게임 캐릭터들의 복식 및 스타일등이 모방, 연출되어져 기능성과 테크놀로지 이미지를 지닌 스포츠패션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방수 방풍 가공 직물,

우주복소재로 사용된 고어텍스(Gore-Tax), 벨크로(Velcro), 케블라(Kevlar), 표면마찰이 거의 없는 PTFE섬유, 빛을 반사하는 전반사섬유 등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위해 개발된 소재들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 이미지 때문에 스포츠패션의 소재로 각광 받고 있다.¹²⁾

3) 하위 문화의 역문화현상

현대사회는 점차 규범적인 라이프스타일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감성중심의 가치로 환원되었으며 보다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세기 후반 다원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스트리트 스포츠와 브레이크 댄스, 힙합 등과 같은 비주류 하위문화가 두드러지게 부상하였다. 최근 비주류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동향으로 힙합(Hip-hop)을 들 수 있는데, 그 고유의 특징은 브레이크 댄스, 스크래치(Scratch) DJ, 랩뮤직, 그래피티 아트, 거리 농구 등의 스트리트 스포츠로 상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하위 문화들은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급격히 확대되었고, 소비자에게 상징적 조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역문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함과 젊음, 아름다움이라는 코드(code)로서 패션 트렌드에 반영되어 왔고, 길거리 농구, 롤러 블레이드, 스케이팅보드, 스노우 보드 등 스포츠와 관련된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스케이트 보딩은 90년대 이후 힙합 문화가 소개되면서 더욱 인기를 얻었는데, 이들의 전형적인 의상으로 엉덩이에 가깝스로 걸려있는 헐렁한 바지, 박스형 T셔츠, 어깨에 둘러맨 가방, 스니커즈 등이 있다.¹³⁾ 이러한 스트리트 스포츠의 특징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새로운 의복의 형태를 지닌다는 것으로, 이처럼 강한 하위문화 형성에는 MTV(Music Television) 등 청소년을 목표집단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최근 기업들은 이런 현상에 동조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스포츠 스타들을 통한 마케팅에 열을 올

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은 스포츠 스타의 경기복이나 패션을 모방하므로써 스포츠 스타들의 부와 명예를 공유한다. 즉 나이키(Nike)의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과 테니스 선수 안드레 애거시(Andre Agassi), 필라(Fila)의 농구선수 그랜트 힐(Grant Hill), 아디다스(Adidas)의 육상선수 도너번 베일리(Donovan Bailey), 리복(Reebok)의 농구선수 샤킬 오닐(Shaquille O'Neal)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¹⁴⁾

Ⅲ. 스포티즘의 사적 고찰 및 스타일 분석

1. 스포츠 패션의 시대적 변천

스포츠 패션은 운동경기나 개인적 운동과 취미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하는 스포츠웨어와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요소 즉, 형태, 디테일, 색상, 소재 등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츠 룩 형태로 발달되었다.

1) 스포츠패션의 성립기(1850년-1919년)

인간은 고대 이전부터 스포츠를 즐겼으며 스포츠웨어는 역사적 변화와 함께 발달되어 왔다. 기원전의 이집트 군대의 레슬링과 그리스의 단거리 경주에서는 나체로 경기를 하였고, 그 후 점차 일상복인 로인클로스(loincloth)를 착용하였으나 경기를 위한 전문적인 스포츠웨어는 없었다.

스포츠웨어는 서유럽, 특히 영국에서 17세기 경부터 사냥복, 승마복 등으로 입기 시작하여 구기용, 등산용 등으로 발전하였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등산, 골프, 사이클링, 승마, 테니스, 수영 등의 스포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그에 맞는 스포츠웨어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복장 개선을 위한 블루머(Bloomer) 스타일이 권장되었고, 자전거의 발명으로 여성을 위한 니커보커(knickerbockers) 등이 유행되어 여성복의 기능적인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성을 위한 활동적이고 기능화된 스포츠웨어가 발달하게 되었다.¹⁵⁾

2) 스포츠패션의 확산기(1920대-1950년대)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미국의 경제, 사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인들의 생활양식이 전세계에 보급되었는데, 이는 복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복은 기능성과 활동성이 부여된 남성화 경향, 스포티화 현상, 캐주얼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¹⁶⁾ 1920년대는 자동차의 발명, 모터 자전거의 유행, 도보여행, 영화, 대중음악 등의 영향 등으로 여가를 즐기는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다. 1929년 뉴욕 월 스트리트(Wall Street)의 주가폭락으로 불경기로 인한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스포츠와 영화관람에 열중하였고,¹⁷⁾ 이를 배경으로 관람용 스포츠웨어, 즉 스펙테이터(spectator) 스포츠웨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스웨터, 블라우스, 바지, 반바지와 같은 관람용 스포츠웨어는 그 근원을 액티브 스포츠웨어에 두고 있지만, 여가 활동에 적합한 옷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스포츠 패션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⁸⁾

이 시기의 여성복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테니스 코트와 해수욕장에서 시작되었는데, 1920년에 수잔 령글(Suzanne Lenglen)이 장단지까지 올라오는 주름 치마를 입고 출전함으로써 치마를 점진적으로 짧게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¹⁹⁾ 1910년 다이빙 시험에서 안네트 켈러만(Annette Kellerman)이 울로 된 원피스 니트 수영복 타이츠를 입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후 수영복은 계속 데콜레테(decollete)되었으며, 30년대에는 홀터넥의 원피스 수영복과 비키니가 출현하였다. 이처럼 스포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신체노출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²⁰⁾ 또한 제2차 세계대전동안 스포츠웨어로 입던 바지를 작업복으로 입게 되었으며, 실용적인 의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킷, 블라우스, 니트웨어, 스커트와 같이 현대 캐주얼 기성복의 주류인 세퍼레이티드 코오디네이트(seperated coordinate)된 독창적인 미국 스타일의 스포츠웨어가 발전되었다. 1938년에는 나일론, 아세테이트 등 신소재가 개발되어 의류소재의 다양성을 가져왔고 지퍼가 발명되어 단추와 훅을 대신하여 여미에 사용²¹⁾되는 등 착용이 편리하게 되었다.

3) 스포츠패션의 성숙기(1960년대-1980년대)

1960년대로 들어와 파리 오프 꾸뛰르에서 스포티브 룩이 등장하였고, 단순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이 패션과 접목되면서 스포츠 룩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60년대 스포츠 룩은 디자인이 단순화된 반면, 소재 및 색상이 중요시되었다. 1950년대 써퍼(surfers)를 효시로 하여 각종 거리 스포츠와 80년대 말부터 두각을 나타낸 랩과 브레이크댄스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하위문화집단의 스타일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대두되었는데, 이들의 의복 스타일은 주로 활동하기에 편한 운동복 스타일이었다.

1960년대에는 그동안 대중적이지 못한 스키가 널리 보급되었고, 1970년대에는 피트니스 붐과 함께 건강과 젊음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의 획득을 통해 자신감을 얻음으로써 인위적인 신체의 장식과 축소보다는 끊임없는 자기관리에 의해 가꾸어진 육체, 자신의 건강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였다. 1970년 중반 조깅 붐으로 인해 대중화된 조깅웨어는 타운웨어화되어 스포츠웨어가 더욱 일상복으로 착용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스포츠 룩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테니스, 아메리칸 풋볼, 농구, 야구 등의 유니폼이나 패딩된 스키웨어는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 이 시기에 에어로빅이 여성들 사이에서 성행되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아디다스와 꼭 맞는 모자, 모자달린 스포츠 탑, 주로 원색이나 검은 색의 트랙 슈트가 착용되었다. 한편 사이클의 붐을 타고 경주용 사이클웨어에서 고안된 레이싱 쇼츠(racing shorts)이 급속히 전파되었고 스케이트 보딩, 롤러 스케이트가 인기를 끄면서 밀착된 레오타드 또는 쇼츠와 배꼽을 보이는 짧은 탑이 유행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스포츠웨어의 캐릭터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스포츠웨어가 캐주얼웨어로 패션화되었으며 스포츠웨어는 캐주얼웨어의 차별화와 고급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4) 스포츠패션의 혁명기(1990년대-현재)

1990년대 이후에는 스포츠가 모든 삶의 영역을 장악하고 문화를 지배하여 현대사회에 미치는 스포츠의

영향은 매우 확대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명 디자이너를 비롯한 패션업계에서는 스포츠웨어의 아이템을 도입하거나 스포츠웨어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아이디어로 응용한 스포츠 패션을 유행시킨 결과 스포츠웨어와 패션의 구분이 점차 사라졌다. 신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가 확산되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복 자체가 캐주얼화 되는 경향을 보였고,²²⁾ 스포츠 캐주얼, 전문 스포츠복, 아웃도어웨어, 트래블웨어, 골프웨어 등으로 나뉘어 왔던 복종구분이 캐주얼화로 인해 일정 장르보다는 범용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스포츠 스타일은 기능미와 단순미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영 패션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60년대 스포티브 패션과 80년대부터 형성된 스트리트 패션의 한 주류인 힙합이 결합하여 완성되어졌다. 힙합 룩은 90년대 청소년 하위문화의 스포츠 스타일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루즈한 실루엣과 스포츠 캐릭터 디자인의 대표적인 원 포인트 패턴, 특정 스포츠 캐릭터 브랜드의 스포츠웨어 패러디 등의 디자인 특징을 가진다.

감성중시의 사회로의 변화, 보더리스(borderless)현상의 확대, 역문화 현상의 확산에 힘입어 패션 전반에 걸쳐 스포츠 감각과 하이테크 소재에 의한 하이패션의 고급스러운 터치와 스트리트 패션의 자유로운 감각이 부각되어 사이버에서 엘레강스까지 다양한 스포츠 룩이 나타났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복식에서도 TPO의 개념이 무너졌다. 현대 디자이너들은 이전에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요소를 혼합하여 디자인하고, 그의 하나로 도시 감각의 타운웨어에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요소를 믹스하여 기능성을 살린 본격적인 스포츠 룩의 등장으로 스포츠 패션은 패션의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²³⁾

90년대 후반의 새로운 현상으로서 좀 더 도전적이고 획기적인 스포츠 즉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극도의 자유와 짜릿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익스트림(extream)스포츠가 붐을 일으켜 과격한 스포츠나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는 놀이에 탐닉하는 사람, 속도광, 대체 스포츠 관련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한 대체 스포츠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여가 시간 속으로 파고들면서 축구와 야구 등 전통적인 스

포츠를 멀리 하고 인라인 스케이팅, 스트리트루지 같은 신종 스포츠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하이테크한 신소재 개발 및 첨단기능을 갖춘 전문 스포츠웨어가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별 디자인 분석

1) 기능지향 스포티즘(Functional Sportism)

기능지향 스포티즘이란 의복의 기능성을 위한 재료, 형태, 디테일,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를 심미적으로 적용, 발전시킨 패션 혹은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포츠웨어나 현상을 의미한다.

원래 스포츠용 의복은 영국에서 기원했으나 이 기능주의 스포츠 룩은 미국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클레어 맥카델(Claire McCardell), 루디 건릭(Rudi Gernreich), 노마 카말리(Norma Kamali), 칼빈 클라인(Calvin Klein), 아이작 미즈라히(Isaac Mizrahi) 등의 디자이너들이 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기능주의 스포츠웨어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기능성 편리함의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디테일에 의해

결정되는 데 있다. 이 특징을 활용하여 단순한 실루엣에 스포츠웨어의 지퍼(zipper), 스냅(snap), 벨크로 여밈(velcro closure), 지퍼(zipper), 후드(hood), 포켓(pocket), 드로우스트링(drawstring), 버클조임, 부츠(boots) 등과 같은 액티브 스포츠 웨어의 기능적인 아이템과 디테일을 디자인 요소로 도입하여 기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은 스포츠 룩에서 영감을 받은 슬리핑 백을 연상케하는 방한과 보호를 위한 패딩을 이용한 올인원 스타일로서 지퍼의 디테일을 양 옆에 장식함으로써 장식적인 요소와 동작을 쉽게 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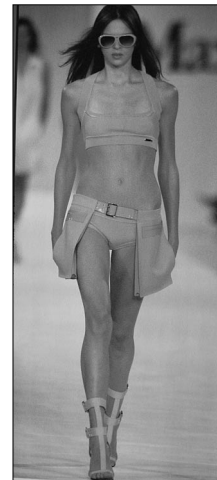
그 외에도 앞자락을 여미는 장식용 막대 모양의 단추, 플라스틱 클램프, 자석단추 등을 이용한 여밈 등이 기능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특징이다. 특히 벨크로 여밈은 착탈의 용이성을 높이고 몸에 맞도록 여유분을 조정하거나 방한을 위해 의복의 개구부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기능적인 여밈장치로서, 주로 스키웨어, 등산복 등의 방한복 점퍼 재킷과 산업현장의 방호복에 사용되어져 스키 부츠, 무릎패드, 테니스 스커트, 스키장갑, 신발, 재킷 등에 여밈을 쉽게 하는 장식으로 이용된다. <그림 2, 3>은 기능성을 상징하는 씬 앞치마(utility apron)형의 포켓을 외부로 연장한 형태로서 대표적인 기능지향적 스타일이다. <그림 4>는 스포츠 패



<그림 1> Chanel, '01/02 A/W, 「Collections」



<그림 2> 기능적인 포켓, Sportstech, p. 155.



<그림 3> Maxmara, '03 S/S, 「Fashion News」

션에서 많이 이용되는 버클장식을 의상 전체적으로 장식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주름효과를 주는 아방가르드한 미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액티브 스포츠웨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속 여밈을 정장스타일에 그대로 적용하여 보다 캐주얼하게 나타냈으며, <그림 6>은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 색상의 패딩 소재를 사용하여 비상용 끈인 탭(tab) 장식, 스포티한 소매의 선 장식, 니커보커형의 여성용 블루머와 매쉬 타이즈를 코디함으로써 기능적이면서도 도발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최근들어 기능지향 스포티즘의 유행은 의상 뿐만 아니라 약세서리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니커즈, 헤드기어, 가방, 장갑, 양말, 선글라스 등 스포츠 패션에서 보여지는 약세서리의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면을 고려한 아이템들이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로서 재디자인되고, 토탈 코디네이션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그림 7>은 바지와 양말, 부츠까지 연결한 팬츠와 스포티한 탑을 조화시킨 잇세이 미야게의 디자인으로 부분적으로 액티브 스포츠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감각을 선보였다. 그 밖에도 티셔츠나 재킷에 분리되는 백과 백 팩, 포켓 등을 응용한 의상의 한 부분인 의상개

념의 약세서리는 기능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어 바쁜 도시인들에게 각광받는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그림 8>은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한 심플한 실루엣의 집업 스타일로서 암벽타기 등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어 헬멧, 장갑, 각종 등반도구 등의 약세서리로서 기능적인 면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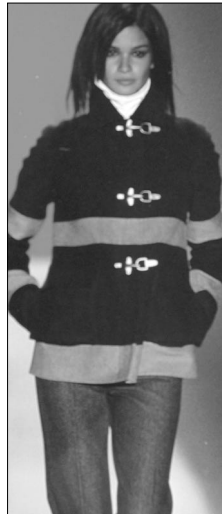
이처럼 많은 디자이너들이 기능성 위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에서 영감을 받아 기능성 뿐만 아니라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스포츠 룩으로 발전, 강화시켰는데,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디자인 요소가 패션성으로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 스트리트 스포티즘(Street Sportism)

스트리트 스포티즘은 20세기 후반 다원주의에 힘입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생성된 하위문화들이 문화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형성된 스포츠웨어로서 카르고 팬츠(cargo pants), 배기진(baggy jean), 피 재킷(pea jacket), T셔츠, 메신저 가방 등 도시 청소년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에서 영향받은 구체적인 아이템이나 디자인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들이 의복을 통해 표현하는 의식과 의복에 대한 태도, 행동 등을 반영하는 룩을



<그림 4> Junya Watanabe, '03 S/S, 「Collections」



<그림 5> Anne Klein, '02/03 A/W, 「Collections」



<그림 6> Christian Dior, '01 S/S, 「Collections」



<그림 7> Issey Miyake, '04 S/S, 「Book Moda」



〈그림 8〉 Chanel, '01/02 A/W, 「Collections」



〈그림 9〉 Yohji Yamamoto, '01/02 A/W, 「Collections」



〈그림 10〉 Alexandre Herchovitch, '04 S/S, 「Collections」



〈그림 11〉 Issey Miyake, '04 S/S, 「Book Moda」

의미한다

젊은 층에게 선호되는 스트리트 패션의 형태는 주로 힙합풍의 패션에 스포티즘이 가미된 스타일과 트래디셔널풍에 스포티즘이 가미된 스타일로 크게 구별된다.

스케이팅 보드, 브레이크 댄스, 랩뮤직, 그래피티 아트, 거리농구 등의 특징을 갖는 힙합풍 스트리트 스포츠 룩은 남녀의 성적 특징을 배제한 남녀 공용의 중성적 스타일을 추구하며, 액티브 스포츠 웨어와 스포츠 유니폼 스타일을 추종하고 옷의 착용 방법이나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착장 형태를 보여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트리트 패션에서부터 시작된 아디다스 룩으로 전문 스포츠 브랜드의 트레이닝복이 캐주얼 브랜드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여진 것이다. 이는 세계의 선장식을 특징으로 하며 셔츠에서 스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템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9〉는 요지 야마모토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아디다스 축구화와 유니폼을 응용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²⁴⁾

80년대 비 보이즈(B-Boys)들의 트레이닝 웨이트랙수트, 야구모자, 배기 진(baggy jean), 카르고 팬츠, 헐렁한 버뮤다 팬츠(bermuda pants), 트랙수트, 후드 스웨트 셔츠, XL사이즈의 셔츠 등 의상과 무릎 보호대, 헬멧, 원색의 고글, 선글라스와 가죽장갑, 어깨에

둘러 멘 큰 가방, 에스닉 헤어 스타일, 스니커즈 등이 대중적 스트리트 스포티즘 스타일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 중 스니커즈는 특수한 스포츠 신발에서 스트리트 패션의 주류로 전환된 대표적 예이다. 그 외에도 대담한 색상의 점퍼와 니트류, 편안한 실루엣의 하의 단품을 주로 단품 코디네이트하거나 레이어드 룩으로서 보다 개성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스트리트 스포츠 패션은 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의 대두로 그들의 컬렉션에서 더욱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0〉은 복서풍의 서로 다른 색상과 감각의 단품들을 자유롭게 겹쳐 입음으로써 보다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는 힙합풍의 스트리트 스포츠 룩이며, 〈그림 11〉은 잇세이 미야케가 '04 S/S 컬렉션에 발표한 작품으로 싸이키한 강렬한 배색과 모터 사이클의 액티브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다양한 디테일로 눈길을 끈다. 〈그림 12〉은 알렉산더 맥퀸의 전위적인 작품으로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럭셔리한 요소와 스포츠 등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믹스되고 드로우스트링 처리의 통이 넓은 광택소재로 제작된 팬츠를 받쳐 줌으로써 빈티지풍의 스트리트 스포티 감각을 보여줬다. 〈그림 13〉은 로고가 강렬하게 적힌 신체에 밀착된 스포티한 레깅스와 탑과 프린트된 짧은 점퍼를 빈티지

풍으로 나타내었고, 스포츠웨어의 굵은 지퍼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벨트 장식으로 전체적으로 스포티한 감각이 돋보이도록 연출하였다.

또 하나의 스트리트 스포티즘을 주도하는 것으로는 보다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트레이셔널풍의 스포츠 룩이다. 이는 과도한 디테일의 빈티지 스타일과 어번 캐주얼의 반격으로 나타났으며, 50년대 영국과 미국 대학의 정신을 상징하는 엠블런이나 문장, 체크 패턴이 트레이셔널 이미지와 함께 고유 스트라이프나 배색, 아웃 포켓 등의 스포티즘 디자인을 믹스해 밝고 세련된미를 추구한다. 화이트 컬러의 클래식한 테니스, 스키, 골프 등 유니폼 등 스포츠웨어에서의 부분적인 디테일을 응용한 스타일과 윌블던 스타 르네 라코스테가 개발한 피케 조직의 폴로 셔츠가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이다. <그림 14>은 목선, 소매부분, 햄라인 부분을 스트라이프로 장식한 V로 깊게 파인 니트와 발랄한 미니 스커트의 코디로 복고풍의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 15>은 트레이셔널 이미지를 규칙적으로 굵게 배색된 스트라이프와 단색의 매치로 더욱 세련되고 활동적으로 보여주며, 수영모자, 벨트, 선장식의 스포츠 가방 및 단화 등 악세서리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보다 스포티한 스트리트 패션을 나타내었다.

<그림 16>는 미국 디자이너인 안나 수이의 작품으로 스포츠 유니폼에서 영감을 받은 로고 탑과 헤어밴드, 짧은 스타킹, 아디다스 운동화, 선장식된 스포츠 가방 등의 악세서리와 스트라이프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데님소재의 60년대풍의 아메리칸 감각을 트레이셔널하면서도 스포티하게 잘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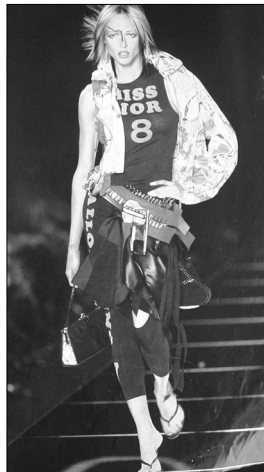
3) 미래지향 스포티즘 (Futuristic Sportism)

미래지향 스포티즘은 스포츠의 과학화에 의한 스포츠 웨어의 테크노성을 응용한 것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스포츠맨을 돕기 위한 테크놀로지의 발전 즉 스포츠를 위한 새로운 소재, 기구, 디자인에 영향을 받은 패션 디자인을 의미한다.²⁵⁾ 그동안 익스트림 스포츠에서의 극한 상황이나 위험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구, 디테일, 장치, 신소재 등이 개발되어진 결과는 미래패션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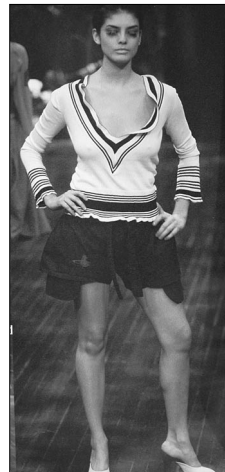
1952년 켈트된 에스키모 아노락과 파카가 일상복으로 선보인 이후 나일론 필링의 대응으로 거위털이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우주인이 사용한 열과 추위를 막아주는 알루미늄 라이닝이 사용되었다.²⁶⁾ 최근 유행하는 미래지향적 스포츠 룩은 자동차 경주, 모터사이클 등의



<그림 12> Christian Dior, '04 S/S, 「Book Moda」



<그림 13> John Galiano, '01 S/S, 「Collections」



<그림 14> Vivienne Westwood, '02 S/S, Collezioni」



<그림 15> Emporio Armani, '04 S/S, 「Fashion News」



〈그림 16〉 Anna Sui, '02 S/S, 『Fashion News』



〈그림 17〉 Chanel, '01/02 A/W, 『Collections』

스피드 경주나 롤라 블레이드 등의 새로운 스포츠에 힘입어 발광체(Glo-works)를 T 셔츠에 부착하거나, 네오프린(neoprene), 라이크라 네트 직물, 낙하산용 직물 등 스포츠 관련 직물을 사용하여 인체 공학과 관련된 테크노 스포츠 디자인을 패션에 적용시켜 나간다.

미래지향 스포티즘은 60년대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eges), 피에르 가르덴(Pierre cardin), 루디 건릭 등에 의해 개발되어졌고, 최근에는 첨단소재의 개발과 디자인의 혁신, 인체 공학적 연구의 힘을 얻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운모 테이프, 금속재료 등의 무탄력성의 광택소재, 신축성이 뛰어난 스트레치 소재, 금속섬유, 전반사섬유 등과 같은 고기능성 섬유, 감성공학적 소재, 실버광택소재나 비닐, 비닐 코팅 등 하이테크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소재에 이어 고무재질의 라텍스 등 하이테크한 소재가 주로 사용되어진다. 디테일로는 스키복이나 등산복에서 사용되는 패딩, 후드, 모터사이클에서의 팔 보호대, 벨크로 여밈 등을 들 수 있으며 네온 칼라 등의 밝은 색상과 결합하여 사이키델릭한 인공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아이디어로서 즐겨 사용되는 액티브 스포츠의 방한용 점퍼인 아노락(anorak)은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디자인되어 대중들에게 널리 애호

되었고, 특히 클립형 스키 부츠의 개발은 우주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²⁷⁾ 그 외에도 퀴팅과 패딩은 겨울 스포츠웨어에 가장 많이 사용된 디자인 요소로 걸감과 안감 사이에 보온제를 넣어 보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루엣 자체에 있어서 인간의 곡선과는 다른 부피감을 얻게 된다. 신체 보호를 위해 착용되어진 헬멧이나 수경 등은 '신선함'이라는 미의식에서 현대인의 새로운 감각을 표현하는 주요한 아이템이 되고 있다. 스노보드와 같이 위험성을 수반하는 스포츠를 위한 의복에 엉덩이나 무릎 등 특정 부위에 천을 덧대어 신체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등, 디테일이 장식적 의미로 전이되어져 사용된다. 〈그림 17〉에서 샤넬의 패딩 스키웨어 컬렉션으로 올인원 형태의 기능적인 남성복과 후드달린 케이프에 로고가 장식된 스노우보드와 머프(muff), 고글 등의 악세서리를 코디네이트시켜 미래풍의 럭셔리한 감각의 스포츠룩을 연출하였다.

캘빈 클라인, 도나 캐런, 조르지아 아르마니, 샤넬 등 패션 디자이너들은 산업용이나 모터사이클 경기복이나 스키, 스노보드, 서핑, 롤러 블레이드, 등산용으로 고안한 텍스타일을 이용한 21세기를 예고하는 옷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스포츠웨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미래지향 스포티즘은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인간 중심적 사고로서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간의 '편안함', '쾌적함' 즉 활동성과 기능을 살린 디자인과 이를 밀받침하는 소재의 중요성을 대두시켰다. 이러한 미래주의적 스포츠패션에서 강조되는 활동성과 기능성은 오늘날 스포츠웨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스포츠웨어의 미래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포츠웨어와 사이버 패션의 결합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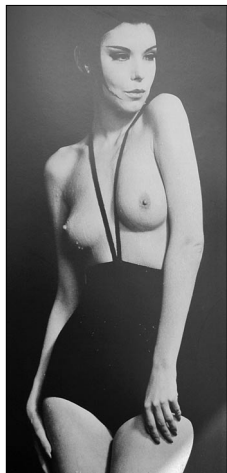
IV. 스포티즘 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특성

1. 중성성

스포츠패션은 어느 패션영역보다도 유니섹스 룩의

선두선자로 중성의 이념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패션의 영역 중 하나이며, 폴로셔츠, 트레이닝 팬츠, 레깅스, 운동화, 배낭, 스웨터 등의 스포츠웨어는 남녀 공용으로 착용된다. 또한 형태, 소재, 디테일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같은 부위를 치수로 측정할 만큼 남녀 공용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중성적인 스타일을 진보적 시각에서 제안했던 대표적 디자이너는 루디 건릭(Rudi Gernreich)으로 1964년에 성적 특성을 배제한 남녀 모두를 위한 토폴리스(topless)수영복을 발표하였다.〈그림 18〉 또한 남녀의 의상에 동일한 형태와 색상을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성적 특성을 제거한 그의 중성적인 스포츠패션은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남녀 착용자에게 미묘한 차이점 즉, 신체의 특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또한 젊은이들이 즐겨 입는 스트리트 스포츠웨어는 TPO 개념과 상관없이 오버사이즈 의상을 레이어드 방식으로 입거나 자연스러운 바디라인을 무시하는 등 남녀의 성적 특징을 배제한 남녀 공용의 유니섹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19〉은 나이키의 반바지와 운동화를 착용하는 남녀가 함께 입는 유니섹스 모드와 성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앤드로지너스 스타일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 1964. 토폴리스 수영복, Rudi Gernreich, p. 71.



〈그림 19〉 House of Jazz, '03 S/S, 「Fashion News」

2. 관능성

현대 스포츠웨어는 자연스러운 육체를 신성화하고 건강한 신체를 중시하는 새로운 미의식을 창출하였고, 신체의 노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 가치관을 조성시켰다. 이에 힘입어 스포츠웨어 뿐만 아니라 여성복식 전반에 걸쳐 신체를 의식하여 성적으로 강조하는 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스포츠 패션에서 보여지는 보디 컨서스 스타일은 모든 신체를 감싸는 울인원 스타일 등의 간접적인 노출 스타일과 신체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직접적인 노출 스타일로 구분된다. 간접적 노출 스타일은 피부에 밀착되는 신축성있는 소재를 이용한 셔츠, 타이츠, 후드달린 점퍼 등으로 운동으로 다듬어진 건강한 인체미를 강조하고, 직접적 노출 스타일은 신체를 과감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미니멀한 실루엣과 절제된 장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능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특히 현대 여성복식에서의 관능적인 노출화 현상은 근대말 여성의 지위에 따른 사회진출과 함께 스포츠웨어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수영복은 여성복의 노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루디 건릭은 토폴리스 수영복 이외에도 투명한 비닐 드레스나 나일론 블라우스, 니트 수영복, 노브라, 컬러 스타킹, 바디 메이크업 등의 전위적인 디자인을 계속 발표하였고, 미래를 주제로 한 패션쇼에서는 누드와 대머리, 토폴리스로써 누드룩을 선보이는 등 육체의 노출을 대담하게 살렸다.

60년대 이후 나일론이 개발되면서 수영복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은 본래 에어로빅, 달리기, 조깅복과 레깅스와 같은 스포츠웨어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서 남녀 모두 운동복 소재의 스트레치로 만들어진 바디수트를 착용하여 신체를 볼륨있게 보이도록 하였고, 이브닝 웨어까지도 운동복 소재가 등장함으로써 그 스타일의 주는 민첩한 이미지와 함께 건강미라는 현대적 여성미를 부여하였다.²⁸⁾ 스키, 스케이트, 사이클링, 육상 등에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 라이크라라는 신체에 완전히 밀착되어 인체의 곡선과 근육의 볼륨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70년대 피트니스 붐과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일상복

으로 착용하는 패션은 스포츠를 통해 가꾸어진 건강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였다. 또한 1980년대 여성들 사이에 유행된 에어로빅은 탱크 톱, 레오타드, 레그워머, 러닝슈즈, 머리띠 등으로 성적 노출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림 20〉는 라이크라 소재를 사용하여 미드리프탑과 거의 언더웨어에 가까운 정도의 쇼츠 팬츠의 트랙 슈트 스타일로서 현대 여성의 건강미를 미니멀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21〉는 비키니 수영복에서 영감을 받은 블랙 컬러의 탑과 새틴 장식의 미니멀한 비치 가운 형태의 하의를 과감하게 매치시켜 섹시하고 관능적인미를 표현하였다.

3. 과시성

근대의 스포츠는 경제적, 문화적인 여유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유행계급의 과시적 소비문화의 결과로서, 그 중에서도 상류계층에 의해 애호되었던 사냥, 골프, 스키, 요트, 승마 등은 자신의 경제력과 신분을 반영해주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스포츠를 직접 하지 않아도 골프나 승마, 스키 등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자인을 차용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에 돈과 여유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신분상승으로서의

과시에 대한 내적 심리가 작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스포츠패션은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와 매력을 과시하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패션은 상표를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테니스 영웅 르네 라코스테(Rene Lacoste)가 1933년 최초로 셔츠 왼쪽 가슴에 브랜드 마크인 악어를 수놓은 〈그림 22〉이후로 많은 스포츠웨어의 브랜드 마크가 외부에 부착되어져 새로운 과시적 수단이 되었다. 랄프 로렌(Ralph Lauren)은 브랜드 마크로 폴로(Polo)를 선택하고 광고를 통해 경제력을 당당하고 클래식하게 보이도록 연출하였다. 특히 스트리트 스포츠웨어에서는 액티브 스포츠웨어나 스포츠 팀의 유니폼을 추종함으로써 스포츠 선수들의 백넘버, 로고와 이름, 라벨 등을 새겨넣은 디자인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 결과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등의 라벨을 자신들을 축적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며, 디자인이나 개성보다도 라벨을 중시하는 풍조를 일으켰다. 〈그림 23〉 스포츠패션에서의 상표는 원래의 기능을 넘어서 그 자체만으로 디자인을 능가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으며, 원 포인트 디자인의 유행은 스포츠 캐릭터의 제 1단으로 그 대부분은 유명 스포츠 선수의 캐릭터를 상품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그림 20〉 Issey Miyake, '04 S/S, 『Book Moda』



〈그림 21〉 Sonia Rikyel, '04 S/S, 『Book Moda』



〈그림 22〉 1927, 악어로고의 유니폼을 입은 라코스테, Sportstech, p. 149.



〈그림 23〉 1988, 로고가 새겨진 스포츠 웨어, Art & Fashion

같이 대중매체에서 스포츠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그의 과시적 측면이 거부감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혁신성

컴퓨터와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스포츠맨을 돕기 위한 인간 공학적인 다각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각종 기능을 갖춘 신소재의 하이테크 기술이 인체의 곡선을 따라 완벽하게 밀착되고, 공기저항을 줄여주어 스키, 스케이트, 사이클링, 육상과 같은 고도의 기능성을 요하는 스포츠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최근 방풍, 방수, 방빙과 보온이 필요한 오프 피스트(off-piste)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의 익스트림 스포츠의 유행으로 활동성과 생존이 스피드보다 더 중요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요소로 등장하였고 고어텍스나 액티벤트(Activent) 등 신소재로 만든 훌륭한 팬츠가 자주 입혀진다. 산악 자전거 선수들은 머리보호를 위해 카본 파이버와 방탄조끼의 소재인 켈바(kelva)로 만든 헬멧을 쓰는데, 이중 메트 니트로 다운 힐 헬멧(Met Nitro Downhill Helmet)은 머리에 편안히 맞게 하기 위한 공기조절 장치가 되어있다.²⁹⁾ 또한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성 소재들이 미적 요소로 도입되어 야간에 가시성확보를 위해 사이클링 웨어와 스키웨어 등에서 사용되는 전반사 물질이 하이테크 이미지의 강조를 위해 액티브 스포츠 웨어에 사용된다.

최첨단과학의 발전과 뉴 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는 패션에서의 새로운 직물과 기술을 사용한 테크노 룩과 사이버 룩의 유행으로 강하게 표출되어지고 있다. 그 결과 패션에서의 최첨단으로 인식되는 혁신의 상당 부분이 직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신소재는 스포츠웨어 회사들에 의해 개발됨으로써 스포츠 산업은 최신의 소재와 디자인에 있어서 늘 시장의 선도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외에도 특수한 기능 및 목적을 위해 개발되어지고 있는 스포츠 기구나 악세서리, 의상들이 일반 패션에 널리 적용,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 에어(Nike-air) 기술을 도입시켜 개발한 나이키 운동화를



<그림 24> Nike Air Zoom Drive, Sporttech, p. 171.

들 수 있다. 밀창에 블로 성형(blow-mould)된 우레탄 쿠션을 사용하여 충격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신발 착용자에게 보호 기능과 편안함을 제공한다.(그림 26)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복식에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은 스포티즘이 나타난 배경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받은 스포티즘 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유형 및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스포티즘이란 단순히 스포츠웨어의 기능적 요소나 스포츠 감각의 디자인 요소를 피상적으로 도입, 응용한 일시적 패션 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미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복식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스포티즘의 영향으로 인하여 일상복과 스포츠웨어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스포츠웨어의 신소재 및 기능적인 디테일과 악세서리가 일상복에도 다양하게 차용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 스포티즘은 여가와 건강미를 중시하는 감성지향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기능성의 추구, 하위문화의 역문화 현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셋째, 스포티즘은 최근 20세기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패션 및 문화, 사회, 라이프스타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스포츠가 발달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는 각 스포츠 종목에 따른 스포츠웨어가 생겨났고 여가시간의 증가로 관객용 스포츠웨어가 형성되었다. 그 후 1960년대 이후 신소재의 발달 및 각종 스포츠의 성행으로 그로 인한 스포츠패션이 유행하였고, 스포츠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하위문화집단의 스트리트 패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20세기 후기의 스포츠웨어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에 힘입어 스포츠웨어의 아이템들이 일상복으로 착용되고 이것은 일반 복식 디자인에 끊임없는 자극을 주어 현대복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넷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은 크게 기능지향 스포티즘, 스트리트 스포티즘, 미래지향 스포티즘으로 분류된다. 기능지향 스포티즘은 주로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소재, 형태, 스타일, 디테일, 색상을 발전시킨 것으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다양한 디테일이나 약세서리, 소재 등에 의해 재디자인되어져 패션화되고 있다. 힙합풍의 스트리트 스포츠 룩과 트레이셔널풍의 스트리트 스포츠 룩의 두가지로 구분되는 스트리트 스포티즘은 청소년들의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패션을 통해 유행된 결과이며, 미래지향 스포티즘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신소재 개발과 함께 인간 공학과 관련되어 미래패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스포티즘 스타일에 나타난 미적 특성으로는 중성성, 관능성, 과시성, 혁신성을 들 수 있다. 스포츠 패션은 형태, 소재, 디테일 등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건강미가 넘치는 신체미를 강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로고, 상표나 스포츠패션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테크놀로지에 의한 혁신적인 신소재나 새로운 기능을 갖춘 디자인의 개발로 미래패션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과거의 기능성 위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에서 발전되어진 스포티즘은 기능성 뿐만 아니라 미학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패션 역사상 비교적 짧

은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트렌드의 핵심요소로서 발전되어져 향후 미래패션의 주역으로 자리할 것이며, 앞으로 스포티즘의 기능적이고 테크놀로지적인 특징과 이질적인 패션요소들과의 결합으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패션 경향을 창출하리라 본다.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이하여 스포츠의 과학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이고, 더욱 미래패션에 알맞은 기능과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스포티즘과 연결시킨 다양한 컨셉의 새로운 패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스포츠패션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지금까지의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스포츠패션 연구 외에도 스포츠의 과학화에 대한 미래패션에서의 테크놀로지와 인간 중심의 사고와 접목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스포츠패션에 대한 마케팅 및 스포츠웨어에 주로 쓰이는 기능적인 신소재 개발에 대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의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Mariyn J. Horn and Lois M. Gurel,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llflin Co., 1981, p. 113.
- 2) 대한 체육회, 체육백서, 1972, p. 39.
- 3) 김현식, 동아프라임영한사전, 동아출판사, 1989.
- 4) Charlotte M. Calasibetta, Fairchild's Dic. of Fashion, 2nd ed., N.Y.: Fairchild Publications, 1988, p. 545.
- 5) 스포티즘이 온다, Fashionbiz, 2000. 4, p. 218.
- 6) 김미영, 한명숙,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5호, 2003, p. 161.
- 7) 임은안,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6.
- 8) 노혜은, 1960년대 High Fashion에 나타나는 Sportive Fashion, 장안논총 12집, 1992, p. 850.
- 9)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 : 경춘사, 1995, p. 315.
- 10) Richard Martin, All American Sportswear

- Traditional, New York, F.I.T., p. 10.
- 11) 강현두, 대중문화론, 서울 : 나남출판사, 1994, p. 16.
 - 12) 임은안, 앞글, p. 13.
 - 13) Joy McKenzie, Joy, the Best in Sportswear Design, London: B.T. Batsford Ltd., 1997, p. 10.
 - 14) 섬유저널, 1998. 7, p. 152.
 - 15) 원혜정, 스포츠웨어의 머천다이징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 9.
 - 16) 정성혜, 미국 sportswear에 관한 연구, 복식, Vol.15, 1990, pp. 218-219.
 - 17) 황옥철, 미국의 스포츠 문화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p. 201.
 - 18) 임은안, 앞글, p. 9.
 - 19) Horn, Marilyn J. Gurel, Louis M.,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1981, p. 113.
 - 20) Martin, Richard, All American : A Sportswear Tradition, New York F.I.T., 1985, p. 12.
 - 21)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1996), 복식문화. 교문사, pp. 222-223.
 - 22) 윤혜진,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여가특성과 패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90.
 - 23) 한은주, 1990년대 스포츠 패션에 관한 연구-Prada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 i-ii.
 - 24) Harper's Bazar, 2002, 4.
 - 25)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복식. 제50권 2호, 2000, p. 23.
 - 26) Ernestine Carter, Changing World of Fashion 1900 to the present, Frome and London : Butler & Tanner Ltd., 1977, p. 222.
 - 27)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48.
 - 28) 김지완, 현대패션에서의 레그웨어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36.
 - 29) 하지수, 앞글, p. 17.
-
- (2003년 11월 17일 접수, 2004년 1월 13일 채택)